

‘雖然’의 어휘화 연구

諸玟志* · 朴興洙**

目 錄

- I. 들어가는 말
- II. 어휘화와 문법화의 정의
 - 2.1 어휘화
 - 2.2 문법화
- III. ‘雖然’의 의미항목 분석
 - 3.1 『古代漢語詞典』
 - 3.2 『近代漢語詞典』
 - 3.3 『現代漢語詞典』
- IV. ‘雖然’의 어휘화 과정
 - 4.1 접속사 ‘雖’와 대체사 ‘然’
 - 4.2 상고시기
 - 4.3 중고시기
 - 4.4 근고시기
 - 4.5 현대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현대중국어에서 ‘雖然’은 앞의 절(clause)과 뒤의 절을 연결(linking)¹⁾해주

* 韩国外国语大学校 大学院 中语中文学科 博士课程(제1저자)

** 韩国外国语大学校 大学院 中语中文学科 教授(교신저자)

1) 찰스 N. 리 · 샌드라 A. 톰슨 지음, 박정구 외 옮김(2013:585): “선행연결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절의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번째 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의 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반대로 후행연결의 경우에는 화자가 말하는 절은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앞의 절에 의존해야 한다.”

는 일종의 문장연결성분(sentence linking element), 즉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다. 문장연결성분은 일반적으로 선행연결성분(forward linking element)²⁾과 후행연결성분(backward linking element)로 나누어지는데, ‘雖然’은 선행연결성분에 해당된다. 또한 ‘雖然’과 같은 이동성 선행연결성분은 대부분 뒤의 절에 나오는 후행연결성분과 호응되며, ‘雖然’은 기본적으로 ‘但是, 可是, 還是, 倒’ 등의 성분과 호응되어 ‘雖然……, 但是/可是/還是/倒’ 등의 구조를 가진다. 그렇다면,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성분(접속사) ‘雖然’은 어느 시기부터 ‘雖’와 ‘然’이 함께 이어져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을까, 또한 선행연결성분 ‘雖然’에 호응되는 후행연결성분도 어느 시기부터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을까? 아래의 예문³⁾을 보자.

- (1) 《左轉·成功三年》：“雖然, 必告不穀。”(설령 그러하더라도, 반드시 좋지 않음을 고해야 한다.)
 (2) 現在我們雖然生活豐裕了, 但是還要注意節約。(현재 우리가 비록 생활이 부유할지라도 절약에 주의해야 한다.)

예문은 ‘雖然’이 한 단어로 함께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그 쓰임새에는 차이가 있는데 (1)에서 ‘雖’는 접속사, ‘然’은 대체사로써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2)에서 ‘雖然’은 ‘설령 … 일지라도’라는 의미만 나타낼 뿐 (1)에서 ‘然’이 나타냈던 의미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예문들에서 ‘雖然’의 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에 본고에서는 ‘雖’와 ‘然’이 언제부터 함께 합쳐져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 언제부터 현대중국어에서의 쓰임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

2) 찰스 N. 리·샌드라 A. 톰슨 지음, 박정구 외 옮김(2013:586-593)에서는 ‘선행연결성분’을 세 가지 유형(①선행연결성분이 절 끝에 오는 경우, ②부사적 선행연결성분이 오는 경우(①이동성 선행연결성분 ② 비이동성 선행연결성분), ③ 완료상)으로 나누었다. ‘雖然’은 ②의 ②에 속하며, 화제/주어의 뒤와 절 앞에 모두 올 수 있다고 하였다.
 3) 예문 (1)은 古代漢語詞典編寫組 編(2003:1288)참고. (2)는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6:1252)참고.

의 목적은 陳寶勤(2011)의 구조어휘화(結構詞彙化) 이론을 토대로 ‘雖然’의 ‘어휘화(Lexicalization, 詞彙化)’ 과정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雖然’의 어휘화에 대한 연구는 ‘雖’와 ‘然’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비록(설령) … 일지라도’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경로는 어떠한지, 규칙성을 지니며 의미가 발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雖然’의 어휘화 과정에 대해 고찰한 최근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陳寶勤(2011), 褚豔(2011), 李永春劉單單(2012), 吳凱風(2017)에서는 모두 접속사(連詞) ‘雖’와 지시대체사(指示代詞) ‘然’이 본래 두 단어였다가 어휘화 과정을 거쳐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접속사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접속사로써 ‘雖然’이 처음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⁴⁾이 있다. 陳寶勤(2011)에서는 ‘雖然’의 어휘화 과정을 ‘상고시기 연용(連用)시작→상고말기 연용구조로 고정화→중고초기 구조어휘화 발생→현대로 와서야 구조어휘화 실현’으로 보았다. 褚豔(2011)은 육조(六朝)에 어휘화를 시작해서 당대(唐代)에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李永春劉單單(2012)은 당대가 아닌 한대(漢代)부터 이미 이음절 단어(雙音節單詞)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吳凱風(2017)은 접속사로써의 역할은 동진(東晉)시기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국⁵⁾에서는 ‘X然’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3편이 있고, ‘雖然’을 주제로 한 것은 1편이 있다. 그 중 ‘雖然’에 연구한 논문은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써 ‘雖然’을 ‘即使’와 함께 한국어 ‘-아도, -지만’과 그 의미를 대조 분석한 것이었다. ‘X然’에 대한 연구 결과 중 임명화(2014)는 西漢시기 劉向의 《說苑》에서 나타난 ‘然’의 품사 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였으며, 박유빈(2014)은 ‘X然’의 결합관계와 문장 기능 분석 및 然의 의미 분석에 초점을 두

4) 吳凱風(2017:60)에서는 접속사로써 ‘雖然’이 처음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는 당대(唐代)와 육조(六朝)시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 중 太田辰夫와 向熹는 당대라고 주장하는 반면, 王力와 楚永安은 육조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에서 검색하였다. (검색일: 2020년 04월)

었다. 고은미(2019)는 ‘X然’ 어휘에 대해 재분석, 유추와 같은 변천기제를 중심으로 문법화와 어휘화에 대해 논하였고, ‘雖然’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然’이 형식 형태소가 되는 과정을 재분석 기제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선행연구 중 ‘雖然’의 어휘화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고찰한 것은 한 편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여러 ‘X然’ 어휘 중 하나의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기를 구분하여 ‘雖然’의 시대별 사용방식 및 어휘화 과정을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하며, 시대별 중국어사전과 허사사전에 수록된 의미항목도 함께 제시하여 ‘雖然’이 어휘화 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雖然’의 통시적인 문형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어휘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사의 시기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1]은 陳寶勤(2011)이 주장한 중국사의 시기구분에 대한 표이다.

[표 1: 陳寶勤(2011)의 시기 구분⁷⁾]

구분	연대	연도 ⁶⁾
遠古	殷商以前	약 기원전 1046년 이전
上古	西周 ~ 西漢	서주(기원전 1046년-기원전 771년) ~ 서한(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中古	東漢 ~ 中唐	동한(25년-220년) ~ 당대 중기(277년-835년)
近古	晚唐 ~ 晚清	당대 말기(875년-907년) ~ 청대 말기(1840년-1912년)
現代	1911年以後	1911년 이후

陳寶勤(2011)은 중국사의 시기를 크게 ‘원고-상고-중고-근고-현대’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陳寶勤(2011)의 구조어휘화 이론에 초

6) 이현국(2008:537)의 중국왕조연표에 기재된 연도와 百度百科에서 연도 참고.

7) 陳寶勤(2011:4)참고.

점을 두고자하며, 이에 陳寶勤(2011)이 구분한 시기에 따라 '雖然'의 어휘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로 '北京大學語料庫(CCL)'에서 예문을 발췌하기에 陳寶勤(2011)이 구분한 시기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CCL의 '選擇範圍(범위선택)'에서 '01周, 02春秋, 03戰國, 04西漢'까지를 상고시기, '05東漢, 06六朝, 07隋, 08唐'까지를 중고시기, '09五代, 10北宋, 11南宋, 12元, 13明, 14清'까지를 근고시기로 구분하여 예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고의 연구방법으로는 분류기술법(分類描寫法)⁸⁾을 토대로 할 것이며, 각 장에서 제시된 예문은 코퍼스인 北京大學語料庫(CCL)를 비롯해 『古代漢語詞典』, 『近代漢語詞典』, 『現代漢語詞典』 第七版, 『古代漢語虛詞詞典』, 『現代漢語虛詞詞典』 및 선행연구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II. 어휘화와 문법화

단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어휘화 과정을 겪은 것도 있고, 문법화 과정을 겪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동사에서 전치사가 되거나, 형용사에서 접사가 되는 것은 문법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단어는 두 과정을 동시에 겪기도 한다. 王燦龍(2005:234-235)에 따르면, 어휘화와 문법화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어휘화는 문법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어휘화 과정은 문법화 과정을 동반한다. 셋째, 어휘화와 문법화는 동일한 거시적인 동인⁹⁾을 가진다.” 그에 따르면, 어휘화가 일어나면서 문법

8) 百度百科(參考資料: 尹均生主編, 『中國寫作學大辭典』 第二卷, 中國檢察出版社, 1998, 第850頁에서 '分類描寫法'에 관한 내용 참고: “按照對象不同類別或構成因素進行描寫的方法(대상의 서로 다른 유형 혹은 구성요소에 따라 기술하는 방법이다).”

(<https://baike.baidu.com/item/%E5%88%86%E7%B1%BB%E6%8F%8F%E5%86%99%E6%B3%95/2288886?fr=aladdin>)

9) 王燦龍(2005:235): “Bisang(1998:15)曾經將造成語法化的因素歸納爲三個方面:一是語言習

화를 수반할 수는 있으나 문법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한 바 본고에서는 ‘雖然’의 어휘화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휘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종종 문법화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휘화와 문법화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현상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본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어휘화와 문법화에 대한 정의는 연도별로 기술하였으며, 각 학자가 제시한 내용을 참고·정리하여 간략하게 종합할 것이다.

1) 어휘화

어휘화는 두 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 성분이 의미나 화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 후에 하나의 단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어휘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떠한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인 한 단어로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어휘화에 관해 연구한 陳寶勤, Laurel J. Brinton · Elizabeth Closs Traugott, 董秀芳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陳寶勤(2011:340): “구조어휘화는 서로 다른 문장 혹은 동일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구조층위 혹은 같은 구조층위에서 두 개의 단음절 단어가 문장선상에서 위치가 인접해있어 중국어의 문장과 절의 제약 하에 점차 고정화되어 하나의 이음절 연용(連用)구조 혹은 문법구조가 되는 것을 칭한다. 이음절 연용(連用)구조 혹은 문법구조는 장기간 동안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와중에 또 점차 하나의 이음절 합성어로 변화하며, 구조어휘화를 초래한다. 중국어의 구조어휘화는 단어의 위치, 음성, 의미, 문법, 화용 다섯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조건 하에 발생하고 완성된다.” 즉, Bisang(1998:15)의 의견과 동

得;二是語用;三是社會語言學。其中以語用因素最爲重要。一種新的變體(包括語義、語用的)形式最初肯定只出現於個別人的口中或筆下,但它後來爲什麼能迅速傳播並擴散開來呢?這其中有一個重要的原則在起作用,這一原則可以稱之爲“人雲亦雲”

일하게 어휘화가 되는 구조를 장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여야 비로소 어휘화가 일어난다고 하며, 그 기제에 화용적인 조건이 중요함을 명시하였다.

Laurel J. Brinton · Elizabeth Closs Traugott 저, 최전승 · 서형국 옮김 (2015:81-82): “어휘화를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맥락에서 어휘화는 단어 형성과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보거나 혹은 동일시된다. 어휘화는 합성, 파생, 품사 전환과 같은 단어 형성의 통상적인 과정을 가리켜 왔다. 합성, 파생, 품사 전환 등의 과정은 화자가 새 단어를 만들어 냄으로써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생산적인 원리로 이해된다. 이때 새 단어란 단어마다 다소간의 의미 차는 있겠지만 지시 의미, 내용 의미를 가지는 형식-의미의 짝을 말한다.” 즉, 그는 어휘화를 통해 새 단어가 만들어진다고 하며, 이 과정은 화용상에 있어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라고 설명하였다.

董秀芳(2009:399)에서는 어휘화와 문법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화’라는 이 술어는 음절수량과 내부구조에서 ‘문법화’라는 개념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의미상 고려가 필요하다. 문법화는 비문법성(non-grammatical) 성분이 문법성(grammatical) 성분으로 바뀌는 것 혹은 문법성이 비교적 낮은 성분이 문법성이 더 높은 성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어휘화는 비어휘성(non-lexical) 성분이 어휘성(lexical) 성분으로 바뀌는 것 혹은 어휘성이 낮은 성분이 어휘성이 비교적 높은 성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문법화는 어휘화와 관련성이 높은 현상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개념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각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휘화란 ‘두 개 이상의 의미요소가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음성, 의미, 화용 등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구조로 고정화 된 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한 단어가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문법화’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문법화

문법화는 본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성분에서 재분석이나 유추 등 여러 기제로 인해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문법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일컫고 이 현상에 대한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문법화에 관해 연구한 沈家煊, 吳福祥, 이성하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沈家煊(1994:17): “문법화’는 통상적으로 언어에서 의미가 실재하는 단어에서 의미가 없어져서 문법기능만 하는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 혹은 현상을 지칭하며, 중국전통언어학에서는 이를 ‘실사의 허화(實詞虛化)’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어 ‘把’, ‘被’, ‘從’ 등은 원래 모두 실재의미를 가진 동사였으나 현재는 이미 허화 되어 전치사가 되었다. 서양 사람들도 ‘문법화’ 개념이 13세기 원나라 때 중국인 周伯琦의 《六書正偽》 중에 나타난 “대체로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모두 사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허자는 모두 고대에서의 실자이다(大抵古人制字, 皆從事物上起。今之虛字, 皆古之實字)”라는 말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문법화는 실사에서 허사로 변하는 과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吳福祥(2004:18): “문법화’가 지칭하는 것은 문법범주와 문법성분이 나타나고 형성되는 과정 혹은 현상이다. 전형적인 문법화현상은 언어에서 의미가 실재하는 단어 혹은 구조식이 의미가 없이 단지 문법기능만 하는 문법성분으로 변화하는 것 혹은 그다지 허화 되지 않은 문법성분이 더욱 허화 된 문법성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문법화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을 통상적으로 ‘문법화이론(語法化理論)’ 혹은 ‘문법화학설(語法化學說)’이라고 칭한다.” 즉, 문법화 현상은 실재의미를 가진 성분이 문법성분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하(2016:21-22):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들(이것을 내용어 또는 어휘어라 부른다)로부터 별 의미가 없이 문법기능만을 주로 하는 단어들(이것을

기능어라 부른다)로 바뀌는 변화를 문법화라고 한다. 이러한 문법화 현상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적’ 현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일어나는 ‘점진적’인 것¹⁰⁾이다.” 즉, 문법화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며, 소위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바뀌는 과정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문법화란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그 의미를 잃고 문법기능만을 하는 성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의미를 잃고 허화 되는 정도에는 성분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법화를 연구하는 이론을 ‘문법화이론’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어휘화와 문법화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어휘화와 문법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나 어휘화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종종 문법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雖然’이 한 단어가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므로 어휘화에 중점을 두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雖然’의 의미항목 분석

‘雖然’은 어느 시기부터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고, 각 시대별로 ‘雖’와 ‘然’의 기본의미와 그에 대한 품사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고대, 근대, 현대시기의 사전에 수록된 의미항목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10) 이성하(2016:22):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대부분의 변화는 여러 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의 *be going to*가 본격적인 미래표지의 기능을 갖는 데는 4-5세기 정도가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 따르면 *be going to*가 ‘과정’이나 ‘준비’와 같은 미래지향성 의미로 사용된 기록은 1482년에 찾아 볼 수 있고, 이것이 *be gonna*처럼 근접한 미래를 나타내는 확실한 형태로 사용된 예는 20세기 초반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약 400여년이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古代漢語詞典』(2003), 『近代漢語詞典』(2008), 『現代漢語詞典』第七版(2016)에 수록된 ‘雖’, ‘然’, ‘雖然’ 세 단어의 의미항목을 통해 각 시대별로 ‘雖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古代漢語詞典』(2003)

(1) 雖(2003:1456)

[副] [부사] ❶ 表示僅限於某個範圍。只。(어떤 범위에 국한되는 것을 나타낸다. 단지)

❷ 表示反詰。難道。(반문을 나타낸다. 설마…하겠는가?)

[連] [접속사] 連接分句, 表示讓步。雖然, 即使。

(단문을 이어주고, 양보를 나타낸다. 비록 …일지라도, 설령 …일지라도)

(2) 然(2003:1288)

[動] [동사] 用同“燃”。燃燒。(‘燃’과 동일하게 쓰인다. 연소하다)

[形] [형용사] 正確, 對。(정확하다. 맞다)

[代] [대체사] 表示近指。這樣。(가까운 것을 지칭한다. 이와 같다)

[副] [부사] 表示前後動作相繼。就。(앞 뒤 동작을 서로 이어준다. 곧.)

[連] [접속사] 連接分句, 表示轉折。不過, 但是。

(단문을 이으며, 전환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런데)

[語氣] [어기사] ❶ 助終結語氣。(종결 어기를 돕는다)

[語氣] [어기사] ❷ 助比擬語氣。一樣。(비유 어기를 돕는다. 같다.)

[後綴] [접미사] 用在形容詞之後。(형용사 뒤에 쓰인다)

(3) 雖然(2003:1456)

即使這樣。(설령 …일지라도 이와 같다)

『古代漢語詞典』에 수록된 ‘雖然’의 의미항목을 통해 ‘雖’는 단문을 이어주는 접속사로써 쓰였고, ‘然’은 고대에 대체사를 포함하여 접속사 등 여러 품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단어가 합쳐진 후에도 여전히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近代漢語詞典』(2008)

(1) 雖(2008:1775)

盡管(설령 ...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 然 (2016:1566)

- ① 雖, 誠然。(비록 ...하지만, 물론 ...이지만)
- ② 然而, 可是。(그러나, 그런데)
- ③ 盡管, 即使。(설령 ...일지라도, 비록 ...일지라도)
- ④ 乃是, 當然。(곧 ...이다, 당연하다)
- ⑤ 正是, 的確。(확실히, 분명히)
- ⑥ 這樣, 如此。(이와 같다, 이리하다)
- ⑦ 然後, 方才能。(그러한 후에, ...해서야 비로소)
- ⑧ 形容詞後綴, 表狀態, 猶“的樣子”、“貌”。
(형용사 접미사로써 상태를 나타낸다. ‘的樣子’, ‘貌’와 같다)

(3) 雖然(2008:1775)

- ① 卻是如此。(역시 이리하다)
- ② 盡管如此。(설령 ...일지라도 이리하다)
- ③ 即使。(설령 ...일지라도)

‘雖然’의 의미항목이 하나였던 『古代漢語詞典』에 비해 『近代漢語詞典』에서는 ‘雖然’의 의미항목이 세 개로 늘어났다. 『近代漢語詞典』에 수록된 의미항목의 확장은 근대에 ‘雖然’의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雖然’의 의미항목 ②로 보아 ‘雖’는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써 쓰였고, ‘然’은 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는 ‘如此’에 관한 내용이 없이 ‘即使’만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근대에는 ‘雖然’에서 ‘然’의 의미가 남아있기도 하고, 허화가 일어나 소실되기도 했다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구조어휘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現代漢語詞典』 第七版(2016)

(1) 雖(2016:1252)

- ① 雖然 (비록 …일지라도)
- ② 即使 (설령 …일지라도)

(2) 然(2016:1090)

- ① <書> [代] 指示代詞。如此；這樣；那樣
(〈글말〉 [대체사] 지시대체사. 이리하다; 이와 같다; 그러하다)
- ② <書> 對；不錯。(〈글말〉 맞다; 정확하다)
- ③ <書> [連] 然而。(〈글말〉 [접속사] 그러나)
- ④ 副詞或形容詞後綴。(부사 혹은 형용사 접미사)
- ⑤ [名] 姓。(〔명사〕 성씨)
古 又同“燃”。(고어에서는 또 ‘燃’과 같다)

(3) 雖然(2016:1252)

[連] 用在上半句，下半句往往有“可是、但是”等跟它呼應，表示承認甲事爲事實，但乙事並不因爲甲事而不成立。

(〔접속사〕 앞의 단문에서 쓰이며, 뒤의 단문에서 ‘可是, 但是’등과 자주 호응된다. 갑의 일이 사실일지라도, 을의 일이 갑의 일 때문에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現代漢語詞典』 第七版에 수록된 ‘雖然’의 의미항목은 고대, 근대와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雖然’은 접속사로써의 기능을 가지나 고대, 근대와 달리 앞의 내용을 대신 지칭하는 의미가 아예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雖然’에서 ‘然’의 의미가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然’의 의미항목 ①을 통해 주로 글말에서만 대체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크게 고대, 근대, 현대로만 나누어 각 사전에 수록된 ‘雖然’의 의미항목을 통해 의미변화과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雖然’에서 ‘然’의 기능은 어느 시기부터 소실되어 ‘雖然’이 단지 ‘雖’의 의미로써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IV. ‘雖然’의 어휘화 과정

본 장에서는 ‘雖然’의 어휘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古代漢語虛詞詞典』에 수록된 ‘雖’와 ‘然’의 용례를 통해 고대에서 사용된 ‘雖’와 ‘然’의 쓰임새를 파악한 후 시기별로 예문을 통해 ‘雖’와 ‘然’에서 ‘雖然’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1) 접속사 ‘雖’와 대체사 ‘然’

‘雖’와 ‘然’은 선진시기(先秦時期)에 본래 각자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 형태소였다. 『古代漢語虛詞詞典』에 수록된 ‘雖’와 ‘然’에 관한 설명 및 예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雖 (2012:556)

《說文》：“似蜥易而大。”虛詞與本義無關，可能是“雌”的假借字。《說文》“雌”字段注：“今用雖爲語詞，有縱恣之意，蓋本當作雌。假雌爲耳，雖行而雌廢矣。”《玉篇》：“雖，詞兩設也。”可用作連詞，表示“縱使”、“雖然”等義。先秦已有用例，後一直沿用至今。《廣雅·釋詁》：“雖，豈也。”“雖”又與“唯”、“惟”通。《說文通訓定聲》：“雖，假借發生之詞。”《經傳釋詞》：“惟，發語詞也。…… 惟，獨也，常語也。或作唯、維，家大人曰：亦作雖。”可用作副詞和助詞，用例只見於上古少數典籍中。
 (《說文》：“도마뱀과 비슷하며 크다.” 허사와 본의는 무관하며, 아마도 ‘雌’의 가차자일 것이다. 《說文》의 ‘雌’자에 대한 단옥재 주: “오늘날 사용하는 雖는 단어 혹은 구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아마도 본래 雌로 삼았을 것이다. 가령 雖뿐이라면, 雖가 쓰이고, 雌는 쓰이지 않을 것이다.” 《玉篇》：“雖, 단어 두 개를 나열한 것이다.” 접속사로써 사용되어 ‘縱使(설령...일지라도)’, ‘雖然(비록...일지라도)’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선진시기에 이미 용례가 있으며, 그 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廣雅·釋詁》：“雖，豈(어찌...하겠는가)이다.” ‘雖’는 또 ‘唯’, ‘惟’와 통한다. 《說文通訓定聲》：“雖, 가차가 발생한 단어이다.” 《經傳釋詞》：“惟, 발어사이다. …… 惟, 다만이다. 상용어이다. 혹은 唯, 維로 쓰인다. 家大人이 말하기를, 또한 雖이다.” 부사와 조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용례는 상고시기 소수의 서적에서만 볼 수 있다.)

• 連詞 <접속사>¹¹⁾

用於連接分句與分句。(단문과 단문을 연결하는데 쓰인다.)

一、表示轉折或反問。常常是前一分句表示肯定或承認，以引起後一分句的轉折或反問。可譯為“雖然”、“儘管”等。

(1. 전환 혹은 반문을 나타낸다. 자주 앞의 단문이 긍정 혹은 동의를 나타내고, 뒤의 단문의 전환 혹은 반문을 이끈다. ‘雖然’, ‘儘管’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1) 顏淵曰：“回雖不敏，請事斯語矣。（《論語·顏淵》）”

(顏淵이 말하기를, “회는 비록 총명하지는 않으나, 이 말대로 따라야 한다.”)

(2) 衆之所助，雖弱必強；衆之所去，雖大必亡。（《淮南子·兵略訓》）

(백성들이 도울 경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백성들이 떠나면, 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二、表示假設。“雖”所在的分句，是說話人故意誇張的假設，以引起下文的論說。可譯為“縱使”、“即使”等。

(2. 가정을 나타낸다. ‘雖’는 모두 단문에 있고, 발화자가 고의로 과장하는 가정이며, 뒤 문장의 말을 이끈다. ‘縱使’, ‘即使’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人一能之，已百之，人十能之，已千之，果能此道矣，雖愚必明，雖柔必強。（《禮記·中庸》）

(사람 한 명이 갈 수 있으면, 이미 백 명이 갔고, 열 명이 갈 수 있으면, 이미 천 명이 갔다. 가령 이 말대로 할 수 있다면, 비록 우둔할지라도 반드시 명석해질 것이며, 비록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11) 접속사로써 ‘雖’의 의미는 『漢語大詞典』(2003:1707)에 수록된 ‘雖’의 의미항목 ㉓과 동일하다. ㉓ 連詞(접속사). 1. 表示讓步關係，相當於“雖然”、“儘管”(양보관계를 나타낸다. ‘雖然’, ‘儘管’과 같다). 2. 表示假設關係，相當於“縱使”、“即使”(가정관계를 나타낸다. ‘縱使’, ‘即使’와 같다).

(4) 語曰：“家有常業，雖饑不餓，國有常法，雖危不亡。”（《韓非子·飾邪》）

(語가 말하기를, “가정에 일정한 업이 있다면, 비록 흉년이 들어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국가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면,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雖’는 본래 접속사, 부사, 조사로써 사용되었으나 부사, 조사로써의 용법은 상고시기에 국한되며, 주로 접속사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과 쓰임새로 보아,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는 ‘雖然’에서 ‘雖’의 의미는 ‘전환 혹은 반문’을 나타내는 것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然’의 용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자.

• 然 (2012:442)

《說文》：“然，燒也。”本義爲燃燒。這一意義後來寫作“燃”。“然”的虛詞用法與本義無關，可能是“尔”的假借字。《說文》段注：“然，通假爲語詞，訓爲如此，爾之轉語也。”可作代詞、連詞、副詞、助詞和語氣詞。

(《說文》：“然은, 연소하다.” 본의는 연소하다. 이 의미는 후에 ‘燃’으로 쓰이게 되었다. ‘燃’의 허사용법과 본의는 무관하며, 아마도 ‘尔’의 가차자일 것이다. 《說文》 단옥재 주: “然, 통가되어 어조사가 되었고, 이와 같다(如此)로 해석되며, 그러하다(爾)의 轉語이다.” 대체사, 접속사, 부사, 조사와 어기사로 쓸 수 있다.)

代詞“然”在古代漢語中用得較爲普遍，但在現代漢語裏只保留在書面語中，如“知其然，而不知其所以然”、“不盡然”等；或者已與其他詞凝固在一起，失去了最初的代詞義，如“然而”、“然後”等。連詞“然”和助詞“然”從古至今，變化不大。副詞“然”只沿用與古代漢語中。語氣詞“然”多用於先秦典籍中，漢以後已不多見，現代漢語中不用。

(대체사 ‘然’은 고대중국어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쓰였으나 현대중국어에서는 글말에만 남아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知其然，而不知其所以然(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 “不盡然(다 그렇지는 않다)” 등이다. 혹은 이미 기타 단어와 함께 고정되어, 처음의 대체사 의미를 잃었다. 예를 들면, ‘然而’, ‘然後’ 등이다. 접속사 ‘然’과 조사 ‘然’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크지 않다. 부사 ‘然’은 고대중국어에서만 사용

되었다. 여기서 ‘然’은 선진시기 서적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 대 이후에는 많이 보이지 않고, 현대중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代詞 <대체사>¹²⁾

用作謂語、賓語或狀語，指代前面所說的情況。可譯為“這樣”、“如此”等。
(술어, 목적어 혹은 부사어로 쓰이며,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을 대신 지칭한다. ‘這樣’, ‘如此’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1) 彼天子固然，其無足怪。(《戰國策·趙策三》)

(그 천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

(2) 今予動吾天機，而不知其所以然。(《莊子·秋水》)

(지금의 나는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까닭은 모른다.)

‘然’의 용법에는 대체사, 접속사, 부사, 조사와 여기서가 있는데, 현대중국어에서 부사와 여기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주로 접속사, 조사의 역할을 하며, 대체사의 역할은 글말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체사로서의 쓰임이 고대중국어에서 보편적이었던 걸로 보아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는 ‘雖然’에서 ‘然’의 의미는 술어의 성격을 지닌 ‘대체사’로부터 변화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쓰이던 ‘雖’와 ‘然’이 어느 시기부터 ‘雖然’이 한 단어로 사용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상고시기

고대중국어를 상고-중고-근고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CCL(고대중국어)의 선택범위별로 검색하여 산출된 ‘雖然’의 항목개수는 [표 2]와 같다.

12) 대체사로써 ‘然’의 의미는 『漢語大詞典』(2003:927)에 수록된 ‘然’의 의미항목 ④와 동일하다.

④代詞(대체사)。相當於“如此”、“這樣”(‘如此’, ‘這樣’과 같다)。

[표 2: CCL(고대중국어)에서 산출된 시기별 ‘雖然’의 항목개수]

구분	상고시기	중고시기	근고시기	총합
개수 (비율)	133개 (2.93%)	94개 (2.07%)	4316개 (95%)	4543개 (100%)

[표 2]를 통해 상고시기에도 ‘雖然’이 연용(連用)되었고, 당대 이후부터 ‘雖然’의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陳寶勤(2011:361)에 따르면, “상고시기부터 시작하여 ‘雖然’은 양보전환관계를 나타내는 복문(讓轉複句) 중 뒤의 전환단문의 문두에서 자주 연용(連用)되었고, ‘설령…일지라도 이리하다(即使如此)’ 혹은 ‘비록…라 하더라도 이리하다(盡管這樣)’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앞 문장 내용의 긍정 혹은 동의를 나타내고, 뒤 문장의 전환의미를 이끈다. ‘雖然’의 연용형식은 상고시기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하였다. 아래 [표 3]은 CCL에서 상고시기를 범위로 설정하여 산출된 ‘雖然’의 검색결과를 사용형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雖然’은 상고시기에 ‘雖然~’이라는 연용형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雖然~’과 같은 형식으로 쓰인 것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3: 상고시기 ‘雖然’의 사용형식]

구분	雖然,	雖然°	雖然~,	총합
개수 (비율)	125 (94%)	4 (3%)	4 (3%)	133(100%)

아래의 예문을 통해 ‘雖然’의 쓰임새를 살펴보자.

- (1) 諸侯之禮，吾未之學也。雖然，吾嘗聞之矣。《孟子·滕文公上》¹³⁾
(제후의 예를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이 그것을 들은 적이 있다.)
- (2) 申生不敢愛其死，雖然，吾君老矣，國家多難，伯氏不出，奈吾君何？
(文件名: 02春秋/國語)

13) 李永春·劉單單(2012:49)참고.

(申生은 감히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나의 군주는 노쇠했으므로 국가에 재난이 많으나, 伯氏가 나서지 않으니, 나의 군주를 어찌하겠는가?)

(3) 兼則善矣。雖然, 天下之難物於故也。(文件名: 02春秋/墨子)

(겸에는 선이니라. 비록 이리하다면, 천하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일일 것이다.)

(4) 申向曰: “向則不肖, 雖然, 公子年二十而相, 見老者而使之戰, 請問孰病哉?” (文件名: 03戰國/呂氏春秋)

(申向이 말하기를, “저는 불초합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공자께서는 나이 이십 세에 재상이 되었으나, 늙은이를 보면 싸움을 하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5) 吾子曰: “善則善矣, 雖然, 其馬將失矣。”(文件名: 04西漢/劉向新序)

(吾子가 말하기를, “선은 것은 선한 것이다. 비록 이리하나, 그 말은 곧 도주할 것이다.”)

(6) 芈卯曰: “臣有死罪。雖然, 臣死, 則契折於秦, 王無以責秦。王因赦其罪, 臣爲王責約於秦。” (文件名: 04西漢/劉向 戰國策)

(芈卯가 말하기를, “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설령 이리하더라도, 신이 죽으면 진나라에 대한 계약이 꺾이는 것이니 왕은 진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왕이 그의 죄를 사면해주었기 때문에 신은 왕을 대신하여 진나라에게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문을 통해 상고시기에는 ‘雖’와 ‘然’이 여전히 각각의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雖’는 뒤의 문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며, ‘然’¹⁴⁾은 앞 문장 내용을 대신 지칭하고 있어 여전히 술어의 성격을 띤 대체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에서도 ‘雖然’의 ‘然’은 여전히 앞에 나온 ‘向則不肖’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접속사의 기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4) 董秀芳(2011/2017:238)에 따르면, “古漢語中的“然”是一個謂詞性代詞, 相當於英語中的“so”, 義爲“這樣、如此”。由於“然”作爲代詞是謂詞性的, 副詞可以出現在“然”的前面做狀語, 一些單音副詞或助動詞與“然”組成的結構在後代發生了詞彙化(고대중국어에서 ‘然’은 하나의 술어성 대체사였고, 영어의 ‘so’에 해당하며, 의미는 ‘이러하다, 이와 같다’이다. ‘然’이 대체사로써 술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부사는 ‘然’의 앞에서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단음절 부사 혹은 조동사와 ‘然’이 결합한 구조는 후대에 어휘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며, 그에 대한 예시로 ‘果然’, ‘雖然’ 등을 제시하였다.

고 할 수 있다. ‘雖然’이 비록 각자의 의미를 지니나 계속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고시기에 ‘雖然’은 ‘연용구조(連用結構)’로 고정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3) 중고시기

陳寶勤(2011:362)은 “중고시기부터 양보전환관계를 나타내는 복문 중 뒤의 전환단문의 문두에 위치하는 ‘雖然’의 ‘然’은 확실히 대체성질을 잃었고, 단지 음절의 역할만 하는 형식형태소(虛語素)가 되었다. ‘雖’도 하나의 연결형태소(連語素)로 변화되었고, ‘雖然’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다시 분석하자면 하나의 이음절 전환접속사(轉折連詞)가 되었다. ‘雖然’이 전환접속사로 바뀐 후에 전환복문의 앞 단문 문두에 위치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점차 전환복문의 앞 단문 중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다. 뒤의 단문 문두에는 ‘然, 而, 但’ 등의 접속사 혹은 부사 ‘亦’ 등과 자주 호응되었고, ‘雖然……然而/但/亦’ 등 연관형식을 구성하였으며, 앞 뒤 두 개의 단문이 전환의미관계를 갖는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중고시기에 ‘雖然’ 중 일부는 아직 어휘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전환연용구조이거나 혹은 전환연용구조에서 전환접속사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고 하였다.¹⁵⁾

그러나 CCL에서의 검색결과 ‘雖然’이 전환접속사(轉折連詞)로 사용된 것보다 여전히 전환연용구조로 사용된 예문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일부만이 전환접속사의 기능을 하였다. 연관형식을 구성한 예도 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당대로 넘어와서야 비로소 전환접속사라는 역할로써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CCL에서 검색한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15) 陳寶勤(2011:363).

[표 4: 중고시기 '雖然'의 사용형식]

구분	雖然,	雖然。	雖然；	雖然如是	雖然如此	雖然~，	총합
개수	57	5	9	4	3	16	94
(비율)	(60.64%)	(5.32%)	(9.57%)	(4.26%)	(3.2%)	(17.01%)	(100%)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7) “雖然可知矣，見明師比言，大迷惑已解，唯加不得已，願復丁寧之。”

(文件名: 05東漢/史論/太平經)

(비록 알만하니, 현명한 스승을 만난 것으로 비유하자면, 큰 미혹이 이미 해결되었으니, 단지 더하지 않고, 다시 그것이 정중해지기를 바랍니다.)

(8) 雖然貧苦孤微，然爲兒童便好俎豆之事。(文件名: 06六朝/道論/抱樸子)

(비록 빈고하고 외롭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제사와 같은 일을 좋아했습니다.)

(9) 雖然，超其時而福善不臻。(文件名: 08唐/唐代墓志彙編續集)

(비록 이룰지라도, 그 시기를 넘기면 복과 선이 이르지 않는다.)

(10) 雖然學者要知眞如闡教如標月指，若復見月，了知所標畢竟非月，則詮圖兩忘。(文件名: 08唐/佛經/禪源詮序)

(비록 학자가 진리를 깨닫고 闡教(고대 중국의 종교성 관직)처럼 표로 달을 가리킬지라도, 만약 다시 달을 본다면, 표시한 것이 달이 아님을 알게 된 즉, 도리와 계책을 모두 잊었다.)

(11) 師曰，雖然黑似漆，成立在今時。

(文件名: 08唐/佛語錄/筠州洞山悟本禪師語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칠흑같이 어두우나, 이 때 성인이 되어야 한다.)

(12) 雖然不應對，卻是得便宜。(文件名: 08唐/唐詩/寒山詩)

(비록 응대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편리함을 얻었다.)

(13) 師曰，雖然如此，不得不與他。

(文件名: 08唐/佛語錄/筠州洞山悟本禪師語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이러하나, 반드시 그와 함께해야 한다.)

(14) 滄山雲，雖然如是，吾亦要知。

(文件名: 08唐/佛語錄/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

(滄山이 말하기를, 비록 이러하나, 나 또한 알기를 원한다.)

예문을 통해 ‘雖然’이 복문을 구성하면 앞의 단문의 문두에 주로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CL 검색결과, 전환접속사로 사용된 ‘雖然’은 총 16개 항목이 산출되었다. 그 중 11개가 당대 문헌이었고, (8)을 비롯해 3개의 항목만이 육조시기의 문헌이었다. 이에 육조시기부터 어휘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항목 개수로 보아 개인의 글이나 말에서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당대로 와서야 전환접속사로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어휘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대의 문헌에서 ‘雖然如此’, ‘雖然如是’ 형식이 총 여섯 항목 산출된 것으로 보아 당대에 ‘然’의 의미가 확실히 없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연용구조형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표 4]의 결과처럼 CCL 검색결과 중고시기에는 (9)의 ‘雖然’이라는 형식이 자주 쓰인 것을 볼 수 있었다.

4) 근고시기

陳寶勤(2011:363-364)에 따르면, “근고시기에 접속사 ‘雖然’은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고, 근고말기에 사용빈도가 매우 높았다. 접속사 ‘雖然’은 전환복문 앞의 단문 문두에 위치하거나 전환복문 앞 단문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뒤의 단문 문두에 나오는 전환접속사 혹은 부사 ‘然, 而, 但, 只, 卻, 倒, 亦, 也, 然而, 但是, 只是’ 등과 호응하여, ‘雖然……然, 而, 但, 只, 卻, 倒, 亦, 也, 然而, 但是, 只是’ 등의 연관형식을 구성하였고, 복문에서 두 개의 단문이 모두 전환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아래의 [표 5]는 CCL에서 근고시기를 범위로 설정하여 산출된 연대별 ‘雖然’의 항목개수이다.

[표 5: 근고시기 연대별 ‘雖然’의 항목개수]

구분	五代	北宋	南宋	元	明	清	총합
개수	88	152	225	50	957	2844	4316
(비율)	(2.04%)	(3.52%)	(5.21%)	(1.16%)	(22.17%)	(65.9%)	(100%)

상기 [표 5]를 통해 ‘雖然’은 청대에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雖然’의 사용형식을 살펴보자.

- (15) “且說周襄王避出王城，雖然望鄭國而行，心中未知鄭意好歲。”
(《東周列國志》第二三回)¹⁶⁾
(또 말하자면, 周襄王은 성 밖으로 물러났다. 비록 鄭國 방향으로 가는 거였지만, 마음속으로는 鄭國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몰랐다.)
- (16) “雖然罪不及拿，只是我死之後，無路可投，作婢作奴，定然不免。”
(《初刻拍案驚奇》第二十卷)
(비록 포박까지 이르는 죄는 아니었으나 내가 죽으면 도주할 길이 없어 하녀가 되든 노예가 되든 아마도 이를 피할 길은 없었을 것이다.)
- (17) 峰雲：“雖然如此，我要共汝商量。” (文件名: 09五代/祖堂集)
(峰이 말하기를, “비록 이러하나, 나는 너와 상의해야한다.”)
- (18) 雖然如是，猶是交互雙明。 (文件名: 11南宋/佛語錄/五燈會元)
(비록 이러하나, 여전히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야한다.)
- (19) 他心裏想道：“師父雖然去了，量這等一個和尚，豈可不奈他何！”
(文件名: 13明/小說/三寶太監西洋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부님은 비록 이미 가셨으나 여기에 한 명의 승려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 (20) 秋穀口中含糊答應，心上雖然不信，卻就此陳文仙家的蹤跡疏了好些。
(文件名: 14清/小說/九尾龜 (二))
(秋穀는 입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비록 믿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陳文仙 집안과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꼈다.)

예문을 통해 근고시기에 ‘雖然’은 대부분 전환접속사로써의 기능을 하였으며, 연관형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근고시기의 ‘雖然’은 구조어휘화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雖然’이 쓰인 모든 문장이 ‘雖然……然, 而, 但, 只, 卻, 倒, 亦, 也, 然而, 但是, 只是’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으며, 뒤의 단문에서 전환관계를 나타내고자 강조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연관형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

16) 예문 (16), (17)은 許少峰 編(2008:1775)에서 ‘雖然’의 의미항목 ㉓ 即使에 수록된 예문임.

다. CCL 검색결과, 근고시기에 ‘雖然如此’는 총 255개 항목이 산출되었으므로 중고시기보다 항목이 훨씬 많아진 것으로 보아 ‘然’의 의미가 어느 정도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雖然’ 형식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예외로 인해 완전한 어휘화가 일어났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5) 현대

陳寶勤(2011:365)에 따르면, “현대에서 양보전환접속사 ‘雖然’은 문헌 중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전환복문의 앞 단문 문두에 위치하거나, 전환복문 중 앞 단문의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뒤의 단문 문두에 나오는 전환접속사 ‘然而, 但, 卻, 然而, 但是, 可是’ 혹은 부사 ‘也’ 등과 호응하여 ‘雖然……然而, 但, 卻, 倒, 然而, 但是, 可是, 也’ 등의 연관형식을 구성하며, 복문에서 두 개의 단문이 모두 전환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현대에서 사용되는 ‘雖然’의 사용형식을 살펴보자.

(21) 他雖然工作很忙, 可是對學習並不放鬆。¹⁷⁾

(그는 비록 일이 바쁘지만,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22) 我們要明白, 我們講的制度是社會的主動行為認識, 這與群的自發的本能行為是不同的。雖然, 本能與主動都是群體在活動中因需要而產生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말한 제도는 사회의 주동적인 행위인식이고, 이것과 군중의 자발적인 본능행위는 다르다. 비록 이러하지만, 본능과 주동적인 행위는 모두 군중의 활동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23) 世界各國社會教育形態雖然都早已存在, 但在本世紀以前, 發展卻是非常緩慢的。

(세계 각국의 사회에서 교육 형태는 비록 모두 일찍이 존재하였지만, 이번 세기 이전에는 오히려 발전이 더뎠다.)

(24) 雖然他的一切努力都是枉費, 可是他從不氣餒。

1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6:1252)참고. (23), (24), (25)의 예문은 모두 北京大學語料庫——現代漢語(CCL)에서 참고함.

(비록 그의 모든 노력이 허비되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낙담하지 않았다.)

상기 예문을 통해 현대에는 대부분 전환접속사로서 복문 중 앞의 단문의 문두에 위치하거나 혹은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연관형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雖然’은 현대로 와서야 대체로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으므로 당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구조 어휘화가 현대로 와서야 완전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雖然’에는 단지 ‘雖’의 의미만 남아있을 뿐이나 (23)을 통해 일부 연용구조로 남아있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現代漢語虛詞詞典』에 수록된 ‘雖然’의 용법을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① 用於前邊小句，暗示後邊小句不是順著前邊的內容說，而是表示轉折，常與“但是”、“然而”、“不過”、“可是”、“卻”等配合使用。

(앞의 단문에서 뒤의 단문이 앞의 내용과 순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며, 전환을 나타낸다. 자주 ‘但是’, ‘然而’, ‘不過’, ‘可是’, ‘卻’ 등과 함께 사용된다.)

예문) 雖然情況變了，但是原訂的計劃要堅持實施。

(비록 상황이 변했지만, 원래 정한 계획은 계속해서 실행해나가야 한다.)

② 帶“雖然”的小句放在後面，對前邊的小句起補充說明的作用，多見於書面語。這時“雖然”常用在小句頭上，前邊的小句不能有“但是”、“然而”之類。

(‘雖然’이 있는 단문이 뒤에 위치하고, 앞의 단문에 대해 보충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글말에서 많이 보인다. 이 때, ‘雖然’은 단문의 문두에 자주 쓰이고, 앞의 단문에는 ‘但是’, ‘然而’ 류가 올 수 없다.)

예문) 機器的內在質量是不錯的，雖然外貌差一些。

(기계의 내부 품질은 괜찮다. 비록 외형이 별로이긴 하지만.)

③ 有時用在重複的名詞(這時用“雖然(不)是”)、動詞或形容詞中間以構成小句，後邊小句中常用“但是”、“可是”、“不過”、“就是”、“倒”、“卻”等配合，在口語中使用。

(때로는 중복된 명사(이 때는 ‘雖然(不)是’를 사용), 동사 혹은 형용사의 중간에서 단문을 구성한다. 뒤의 단문에서 자주 ‘但是’, ‘可是’, ‘不過’,

‘就是’, ‘倒’, ‘卻’ 등과 결합하고, 입말에서 사용된다.)

예문) 這首飾舊雖然舊了點, 不過還是值錢的。

(오래된 이 장식품은 비록 오래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값어치가 있다.)

상기 용례를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전환접속사 ‘雖然’이 높은 빈도로 사용됨에 따라 용법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는 모두 동일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써의 용법이다.

Givón은 “오늘날의 형태론은 바로 어제의 통사론이다(今天的詞法就是昨天的句法)”¹⁸⁾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雖然’ 또한 이 말에 적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중국어에서 ‘비록 ...일지라도 이리하다(雖然如此)’라는 의미로 ‘然’이 대체사로 쓰여서 ‘雖然’이 일종의 문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雖然’에서는 더 이상 ‘然’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단지 접속사로써 단어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 또한 본 장을 통해 ‘雖然’ 역시 상기 어휘화의 정의 부분에서 살펴본 蔣紹愚의 견해인 “하나는 어떤 언어형식이 그 논거를 잃고, 구조가 고정되어 마지막에 한 단어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칭한다.”라는 것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雖然’은 어휘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雖然’의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내린 어휘화와 문법화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어휘화’는 ‘두 개 이상의 의미요소가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음성, 의미, 화용 등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구조로 고정화 된 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한 단어가 되는 과정’, ‘문법화’는

18) 金立鑫(2011:291)에서 재인용.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그 의미를 잃고 문법 기능만을 하는 성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古代漢語詞典』, 『近代漢語詞典』, 『現代漢語詞典』 第七版에 수록된 ‘雖’, ‘然’, ‘雖然’의 의미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대에는 ‘雖然’의 ‘雖’와 ‘然’이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雖’는 접속사, ‘然’은 술어의 성격을 가진 대체사의 기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近代漢語詞典』에서 수록된 ‘雖然’의 세 가지 의미항목을 통해 근대에 ‘雖然’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항목의 변화를 통해 근대에 ‘雖’는 여전히 접속사의 역할을 했지만, ‘然’은 대체사의 기능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현대로 와서야 ‘雖然’의 의미항목에 ‘然’이 본래 지닌 대체사의 역할에 대해 더 이상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휘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雖然’의 어휘화 과정에 대해 시대별로 상세히 고찰해보았다. 고대중국어에서 ‘雖然’은 근고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단어로 따로 쓰이던 ‘雖然’은 상고시기부터 함께 쓰이기(連用) 시작하였다. 상고시기에 연용이 되기 시작하였지만, ‘雖’와 ‘然’은 여전히 각 단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중고시기로 와서 ‘雖然’의 역할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然’이 술어성 대체사로써의 기능을 점차 잃기 시작하였으며, ‘雖然’이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雖然’의 후행연결성분도 이 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雖然’의 어휘화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CCL에서의 검색 항목개수와 예문을 토대로 ‘당대’가 되어서야 어휘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후에 근고시기로 들어와서 ‘雖然’은 비로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청대에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CCL 검색결과, 현대에 와서야 대부분의 예문에서 ‘雖然’이 전환접속사로써 쓰인 것으로 보아 어휘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어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음을 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사전류

- 古代漢語詞典編寫組 編, 『古代漢語詞典: 四色插圖本』, 商務印書館, 2003.
漢語大詞典編寫委員會編, 『漢語大詞典』, 商務印書館, 2003.
許少峰 編, 『近代漢語詞典』, 中華書局, 2008.
張斌 主編, 『現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0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第七版, 商務印書館, 201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 編,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2012.

단행본류

- Laurel J. Brinton·Elizabeth Closs Traugott 저, 최전승·서형국 옮김, 『어휘화와 언어 변화』, 도서출판 역락, 2015.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6.
이현국, 『중국시사문화사전』, 도서출판 인포차이나, 2008.
찰스 N. 리·샌드라 A. 톰슨 지음, 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옮김, 『표준중국어문법(수정2판)』, 한울, 2013.
陳寶勤, 『漢語詞彙的生成與演化』, 商務印書館, 2011.
董秀芳, 『詞彙化: 漢語雙因此的衍生哈發展[修訂本]』, 商務印書館, 2011/2017.
金立鑫, 『語言研究方法導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日]太田辰夫 著/蔣紹愚, 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1987.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1980.

논문류

- 고은미, 「‘X然’의 문법화와 어휘화 연구」, 『중국어학논총』 제65집, 2019.
박유빈, 「‘X然’의 허화 의미 분석」, 『중국어문논총』 제65집, 2014.

- 안근영, 「轉折關係表達手段“即使、雖然”與“-아도、-지만”語義與邏輯關係對比考察」, 『中國人文科學』 제68집, 2018
- 임명화, 「《說苑》에 나타난 ‘然’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57집, 2014.
- 褚豔, 「“X然”類連詞的詞彙化研究」, 安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董秀芳, 「漢語的句法演變與詞彙化」, 『中國語文』, 2009年第5期(總第332期), 2009.
- 李永春·劉單單, 「論連詞“雖然”詞彙化」, 『樂山師範大學學報』 第27卷第1期, 2012.
- 沈家煊, 「“語法化” 研究綜觀」, 『外語教學與研究』 1994年第4期(總第100期), 1994.
- 王燦龍, 「詞彙化二例——兼談詞彙化和語法化的關係」, 『當代語言學』 第7卷第3期, 2005.
- 吳福祥, 「近年來語法化研究的進展」, 『外語教學與研究』 第36卷第1期, 2004.
- 吳凱風, 「“然”系詞語的詞彙化考察」,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사이트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北京大學語料庫(CCL):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Abstract

The Study on the Lexicalization of ‘雖然’

Che, Yunji · Park, Heungsoo

In this paper, the lexicalization process of ‘雖然’ was examined in detail by age. In ancient Chinese, ‘雖然’ was most often used during the early Modern age(近古). ‘雖然’, which was used separately for each word, began to be used together from the Ancient times(上古). Although they began to be used continuously during the Ancient times(上古), ‘雖’ and ‘然’ still indicated the original meaning of each word. In the Middle ages(中古), the role of ‘雖然’ began to change. ‘然’ gradually began to lose its function as a predicate pronoun and ‘雖然’ began to be used as a conjunction that indicates a conversion relationship. Also, the forward linking element of ‘雖然’ began to be used from this period. However, there was a disagreement about the occurrence time of ‘雖然’ lexicalization among scholars. But this paper considered that lexicalization began to occur during the Tang(唐) dynasty based on examples in CCL. Afterwards, ‘雖然’ was used universally in the early Modern age(近古) and was used most frequently in Qing(清) dynasty. As a result of CCL search, it was found that ‘雖然’ was used as a conversion conjunction in most example sentences in Modern times(現代) and after lexicalization process, it became a single word. However, even in the modern Chinese corpus, there are some example sentences that ‘雖然’ was used separately for each word. So there are still some exceptional situations. Therefor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雖然’ plays role as a transitional conjunction in all sentences.

Key words : SUIRAN, Lexicalization, Forward linking element, Conjunction, Semantic elements

투 고 일 : 2020. 4. 10. / 심 사 일 : 2020. 4. 15.~ 2020. 5. 15. / 게재확정일 : 2020. 5. 20.

